현불 논단

소년법 '폐지' 아닌 '보완'을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범죄학박사

최근 '잔혹' 청소년 폭력범죄들에
국민들 소년법 폐지 청원 이어져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 화두
보호처분서 형사처벌로 이동 추세
형사미성년 9살 이하로 낮추기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능사 아냐
소년범죄 줄이는 맞춤형 대책 필요

최근 전국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듣기조차 힘들고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범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놀란 가슴으로 사람들은 너나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소년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고 그들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대응책(Get tough policy)', 즉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존재로 보아 범죄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당연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한 범죄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는 생물학적, 유전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으로 범죄자가 되고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행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고 치료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범죄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은 아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그들의 범죄나 비행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행위조차도 소년사법의 대상이고 보호처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사법에 형사처벌이 강조되는 성인사법이 가미되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으로 이송하고,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심지어는 9살 이하로까지 낮추며, 특정한 강력범죄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최소형량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년법제나 소년사법제도 더 구체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형사사법과 형사처벌이냐의 이분법적, 획일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이고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들의 동기도 배경도 가지각색이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소년범죄자의 범죄행위를 획일적으로 보고 소년사법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거나, 그 반대로 소년사법과 소년법은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소년범의 범죄를 다 성인사법의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할 것이다.

특히 소년범죄의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로 간주되고 있으나 형벌의 고통으로 인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은 온데 간 데 없이 오히려 소년원에 다녀온 것이 훈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낙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소년사법이냐 형사사법이냐의 확일적 선택보다는 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하나의 선택보다는 다양성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

社說

승가교육 개선, 미룰 수 없는 숙제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에 당면해 있다. 지난해까지 유지했던 150명 선이 무너져 올해에는 11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감소 속도다. 200명에서 150명 선으로 무너지는 데 3년이 걸렸지만, 150명 선이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다. 이런 속도라면 2025년이면 출가자가 고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가자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제기된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여파가 출가에도 오고 있는 것이고, 25%에 달하는 퇴사율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출가문화로 인한 문제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출가자 감소는 노정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은 출가 인원이 효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조계종 교육원이 7월 12일 승가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종책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찰승가대학 수 조정, 수학기간 변화 등의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 대표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입장 차는 명확했다. 해당 교육기관 대표자들은 전통적 교육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원은 승가교육의 변화는 불가피함을 어필했다. 그러면서도 참가자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지금 승가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 종단의 교육시스템은 이 변화를 담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상과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그에 맞는 분석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폭 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 승가교육 변화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변화의 적기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세계유산 산사, 조화로운 변화를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원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산사에 대해 신청된 7곳이 아닌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곳을 등재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계종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와 정부, 지차체는 막판 외교전을 펼쳐 7곳 모두 등재를 이끌어냈다.

특히 등재추진위 실무진들은 정오표와 외교 지지 교섭 자료들을 작성해 전달·배포했고, 이는 모두 등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한 실무진이 있었기에 이 같은 쾌거는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등재로 한국의 산사는 독보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천년 넘게 이어온 한국 스님들의 수행·생활·교육 등 무형적 요소들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 단순히 건축물, 불상과 같은 유형의 유산만이 아닌 스님들의 생활·수행·신앙 등도 무형의 유산임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7곳 산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 등재처는 6년마다 잘 보존되는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잘못됐을 경우 위험 유산으로 분류돼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다. 조계종이 산사통합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계획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제대로 된 보존·관리·활용만이 오늘의 이 기쁨을 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별기고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후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체험이 사찰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계 유일의 전문상담기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이 7월 7~8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금선사에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개최한 것이다. 마음 속의 아픈 상처를 녹인 이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후기를 전한다. **<편집자 주>**

"마음 한구석 힘든 부분 떨쳐"

가족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7월 7일 진행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템플스테이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산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물소리가 처음 방문하는 저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좋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더 좋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108배를 통해 힘들었던 심신에 집중하면서 나쁜 감정들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새 출발을 위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마음 한 구석에 힘들었던 부분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을 집단상담을 통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감 나누기 시간에 한 여성 참가자 분께서 자신의 희망모습이 아닌 저의 희망모습을 지점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것을 재차 말씀해 주셔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잊고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는 불쌍한 나를 돌아보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너무 행복했으며, 아울러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살자 유가족 윤이석 씨(가명)**

"항상 내 고통만 생각했는데…"

참가할지 말지를 7월 7일 토요일 아침까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용기 내어 참가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아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고민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찰에서 조용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모두가 힘들게 사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는 여유를, 삶의 여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숲속 명상에서 마음의 여유 느끼기, 거울 바라보기, 숲속의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물 소리 등이 좋았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저를 자연인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가운데 우리도 하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야 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금방 지치겠지요. 하지만 지금 있는 이런 상쾌한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육인숙 씨(가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